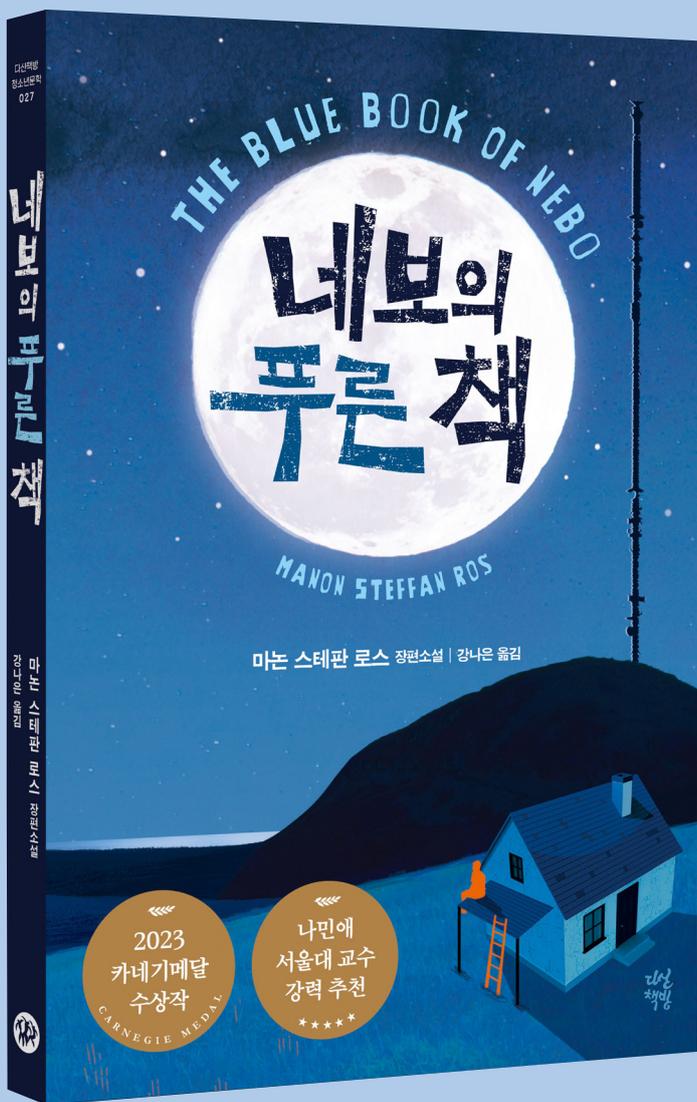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네보의 푸른 책

마논 스테판 로스 장편소설

주제어: 재난, 기록, 가족애, 핵폭발, 문명

• 책 소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청소년문학상인 카네기메달의 2023년 수상작 『네보의 푸른 책』이 출간되었다. 번역서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카네기메달 87년 역사상 최초이며, 수상 발표즉시 12개국에 판권이 계약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성장소설로 자리매김했다.

핵폭발이라는 대재앙적 사건 이후 웨일스의 외딴 마을 ‘네보’에 남겨진 엄마와 아들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생존기를 그린 작품으로, 절망과 희망 사이의 내밀한 감정선이 두 사람의 일기 형식으로 펼쳐진다. 살아가기 위한 고군분투뿐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기록하는 모습을 통해 몸소 일구고 느끼며 기억하는 진정한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 학습 목표

1. 소재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2. 인물의 행동에 숨겨진 심리를 파악하며 작품을 읽을 수 있다.
3. 우리말의 소중함을 담은 영상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읽기 전	웨일스 알아보기
2	읽기 중	[11~37쪽] 1. (감상적 읽기) 작품 내용 내면화하기 2.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이해하기 3. (추론적 읽기) 소재의 정체 추론하기 4. (감상적 읽기) 작품 내용 내면화하기
3		[38~69쪽] 1. (추론적 읽기) 인물의 정체 추론하기 2. (창의적 읽기) 글 쓰는 방법 배우기 3. (창의적 읽기+감상적 읽기) 작품 내용을 내면화하여 글 쓰기 4.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추론하기
4		[70~98쪽] 1. (감상적 읽기+창의적 읽기) 작품 내용을 내면화하여 글 쓰기 2.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의 심리 추론하기 4. (추론적 읽기)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5		[99~127쪽] 1.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의 행동 의도 추론하기 3.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추론하기 4. (추론적 읽기)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6		[128~160쪽] 1.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추론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의 심리 추론하기 4.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추론하기
7		[161~186쪽] 1. (추론적 읽기) 인물의 과거 추론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 간 공통점 추론하기 3. (창의적 읽기) 상호텍스트적 읽기 4. (추론적 읽기+창의적 읽기) 인물의 심리 추론하기+결말 이후 세계에 관해 상상하기
8		읽기 후

1. 웨일스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도 TIP

이 작품은 웨일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시 활동은 학생들에게 낯선 나라인 웨일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소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게 돕는 목적입니다.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웨일스에 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동영상: 베일, 깅스, 아서왕과 웰시코기의 나라 웨일즈!
<https://www.youtube.com/watch?v=9EDEeckK07wM&t=145s>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웨일스에 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동영상: 루크에반스, 태론 에저튼의 웨일스 마을이름 말하기[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8rSVgRhB4uQ>

지도 TIP

작품에서 등장하는 웨일스어의 어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간략하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4.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웨일스 지역에 대해 알아보시다.

- ▶ 네보: https://en.wikipedia.org/wiki/Nebo,_Anglesey

▶ 앵글시:

<https://ko.wikipedia.org/wiki/%EC%95%B5%EA%B8%80%EC%8B%9C%EC%84%AC>
<https://www.youtube.com/watch?v=VPSQ2aDBock>

▶ 방고르:

[https://ko.wikipedia.org/wiki/%EB%B1%85%EA%B3%A0%EC%96%B4_\(%EC%9B%A8%EC%9D%BC%EC%8A%A4\)](https://ko.wikipedia.org/wiki/%EB%B1%85%EA%B3%A0%EC%96%B4_(%EC%9B%A8%EC%9D%BC%EC%8A%A4))

<https://www.youtube.com/watch?v=ynRXmcl5P08>

▶ 카이나르폰:

<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B%82%98%EB%B2%88>

<https://www.youtube.com/watch?v=nOmY490yNFI>

지도 TIP

위 지역은 모두 실존하는 지명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허구적으로 재창조된 공간입니다. 예컨대, 앵글시는 작품에서는 'Anghysi'로 표기된 앵글시의 실제 지명은 'Anglesey'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웨일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직접 정보를 찾게 하고 싶으시면 영문명 혹은 아래 이름으로 바꿔 검색하도록 안내해주세요. 영어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인 경우도 한국어 번역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막 설정을 바꿔서 활용해 보라고 안내해 주세요.

방고르(Bangor) → 뱅거 혹은 뱅고어
카이나르폰(Caernarfon) → 카나번
앵글시(Anglesey)

4. '영국의 역사'에 관해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지도 TIP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영국이라는 한 국가 연합으로 묶인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웨일스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모둠을 구성하여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네 거야. 네 이야기를 적어봐.”

“네보의 푸른 책’이라고 하면 되겠다.”

나는 미소 띤 얼굴로 노트를 받아 들며 말했다. 펼치니 아무 것도 적히지 않은 넓고 깨끗한 종잇장들이 마치 새로운 날들 같았다.

“응?”

“『카이르버르딘의 검은 책』이나 『헤르게스트의 붉은 책』 같은 옛날 책들처럼 말이야.”

어느 웨일스 역사책에 나오는 책들이다.

“우리 역사가 담긴 중요한 책들. 지금 이 순간도 역사의 일부잖아, 안 그래?”

이 노트의 표지는 보기 좋은 짙푸른 색이다. 아주 짙어 거의 까맣게 보인다. 웨일스 시인 딜런 토머스는 이런 푸른색을 ‘성경의 검정’이라고 했다. 성경은 책등에 적힌 제목을 보지 않아도 성경임을 알 수 있다. 그냥 느껴지니까. 이 푸른 노트는 그렇게 중요한 책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책이란 그저 한데 엮은 말들일 뿐이다.

1-1.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의 표지는 어떤 색인지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1-2. 여러분의 삶에 관한 기록을 책으로 엮는다면 어떤 색을 표지로 하고 싶은지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2. 작품을 읽고 다음 괄호를 채워봅시다.

종말이 다가온 연도	()년
	↓
()년 후	
	↓
현재 연도	()년
엄마(로웨나) 나이	36 세
아들(덜란) 나이	()세

3. <보기>를 읽고 월바의 정체에 대해 추측해 봅시다.

<보기>

토끼를 헛간에 두고, 밖으로 나와 잎과 풀 같은 부드러운 것들을 모았다. 토끼가 원한다면 작은 집을 만드는 데 쓰겠지 생각했다. 토끼는 수납장 뒤에 숨어 있었다.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숨어만 있어 나는 문을 닫고 헛간을 나왔다.

“뒷에 뭐 잡혔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물었다. 엄마는 장갑을 끼고 점심 재료로 쓸 썰기풀을 따고 있었다.

“멀쩡하지가 않았어.”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는 엄마에게 덧붙여 말했다.

“얼굴이 두 개였어.”

“뭘?”

“앞발이 없고 대신 얼굴이 하나 더 있었어, 죽은 얼굴이.”

엄마는 고개를 숙여 길고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다쳤고?”

“뺨이 안 다쳤어. 그래서 보내줬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헛간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못했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아마 말했으면 엄마에게 이해받지 못했을 것이다.

“망할 놈의 월바 때문이야.”

엄마가 말했다. 뒷다리가 없는 새끼 여우나 두개골이 절반 밖에 없어 보이는 다람쥐를 목격했을 때도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망할 놈의 월바’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내가 읽은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았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적당한 순간을 찾을 수가 없었다.

- ▶ 참고 동영상: 전 세계를 충격시킨 방사능 괴물의 출현!
<https://www.youtube.com/watch?v=0165lkbkpAl>

4. <보기>를 참고하여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을 묘사해 봅시다.

<보기>

“바운티라는 초코바가 있었어.”

물론 나도 초콜릿이 기억난다. 하지만 ‘바운티’라는 초콜릿은 생각나지 않았다. 기억나는 초콜릿이라면 데어리밀크, 펑귄, 밀키바, 프레도 따위다.

“초콜릿 속에 작은 코코넛 조각이 가득했어. 설탕으로 끈적거리고. 나는 늘 초콜릿 부분을 먼저 다 먹고 가운데 부분을 먹었지. 밀크초콜릿은 포장지가 파란색, 다크초콜릿은 진한 빨강이었어.”

“코코넛은 호두 같은 거야?”

“아니, 아니. 달콤한 맛이 나고, 자잘한 조각이 잔뜩 뭉쳐져 있어.”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이미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한 내용이었다. 정자가 난자를 향해 헤엄쳐 자궁 내벽에 착상하고, 조그만 아기가 자라고 자라 너무 커지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내용.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진 못했던 모양이다. 정자는 남자에게만 있다는 것, 아기가 생기려면 정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모나의 탄생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중략) 하지만 엄마는 긴 세월 동안 남자를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 모나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도 TIP

서사의 전개상 모나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보기>의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엄마(로웨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봅시다.

- ▶ 참고 동영상: 나는 말하듯이 쓴다. 강원국의 말 잘하고 글 잘쓰는 법
<https://www.youtube.com/watch?v=4rzBgyakghg>

<보기>

엄마는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가 쓴 글은 다른 책에 나오는 문장처럼 자연스럽게 않고 어색하기만 하다면서 말이다. 반면에 내가 쓴 글에는 우리가 나눈 대화 등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어 좋다고 엄마는 말했다.

내가 정말로 말하듯이 글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다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까. 엄마는 마치 음식을 아껴 먹듯 말을 아낀다. 나는 엄마보다 모나한테 말을 더 많이 하는데, 모나는 아직 어려 대답할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말을 걸면 모나는 웅알이로 답한다. 엄마는 어떻게 그리 오래 말없이 버틸 수 있을까.

대화 상대가 없으면 긴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책이 내게 말을 걸긴 하지만. 가끔은 내 말이 종말 이전 사람들의 말과 다르진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가끔씩 내가 내뱉은 표현에 엄마의 눈

빛이 좀 이상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바르게 말하는 법을 내가 무슨 수로 알겠는가.
“사람은 원래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게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지.”
글 쓰는 것이 어려워서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로웨나? 그렇다면 내 조언이 도움이 될 거야.

지도 TIP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아래 영상을 보여주세요. 글쓰기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어휘력 신장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 말하듯이 글쓰는 강원국의 특급 글쓰기 노하우 [북잼 콘서트] 강원국
https://www.youtube.com/watch?v=hEwyVXUB_FU

3. <보기>는 로웨나가 게이노르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보기>

나는 게이노르 이야기를 써야 한다.

그 미용실의 냄새가 게이노르를 영혼처럼 따라다녔다.

과산화수소수 냄새, 아몬드 샴푸 냄새, 빗자루로 쓸어낸 바닥의 젖은 머리카락 냄새 따위……. 나는 어릴 때 우리 집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게이노르의 ‘실버 시저스 미용실’에서 나는 냄새가 꼭 내 집처럼 따뜻하고 포근하다고 생각했다.

게이노르에 관해 할 말이 참 많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에 관해서 말이다.

게이노르는 손님이 들어와 의자에 앉으면 자기가 수다를 떨어야 하는지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를 그때그때 신기하게 구분할 줄 알았다. 어떤 손님은 게이노르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끝없이 듣고 싶어 했다. 당근 값이 얼마라든가 아침에 오가는 쓰레기차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난다든가 카이나라 본 중심가 가게들의 텅 빈 진열장을 보는 것이 슬프다든가 하는 이야기들. 한편 자주는 아니어도 게이노르가 굳이 조용함을 말로 채우지 않고 내버려둘 때도 종종 있었다. 의자에 앉은 손님이 그 조용한 공백 위에 가슴속 무거운 말들을 꺼내놓게 했다.

“어제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라든가.

“2주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안 했어요.”라든가.

때로는 그냥 눈물이었다. 손님이 말없이 흘리는 눈물이 주름진 얼굴 위를 어제처럼 미끄러져 내렸다.

게이노르는 머리 손질을 시작할 때와 끝낼 때, 두 손을 손님 어깨에 얹고 거울 너머로 손님과 눈을 마주 보곤 했다. 우리가 의사들에게서 느끼기를 바라지만 좀처럼 느끼기 힘든 친절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지도 TIP

친구의 일상적 행동을 관찰하여 긍정적인 면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지도해 주세요. 2번 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말하듯이 쓰는 연습을 곁해도 좋습니다.

4. <보기2>를 참고하여 <보기1>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종말’의 관련성을 고려해 덜란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소설에서 어떤 상징성을 지니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1>

“노아의 방주 같아.”

봄의 폭풍우가 집 안으로 쳐들어오겠다고 위협하던 어젯밤, 덜란이 말했다. 예배당이나 교회에는 가본 적도 없는 내 아들이, 내가 뜨겁게 뒤엎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잉태된 내 아들이 성경을 안다. 덜란은 성경 속 이야기들이 좋다고 했다. 특히 신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를 없애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좋다고.

<보기2>

“젠장, 핵이라니. 우린 다 뒤졌어, 로웨나.”

머릿속에서 버섯구름이 떠올랐다. 나는 그 이미지를 밀어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다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도 결국엔 다 괜찮았잖아.’

나는 물었다.

“핵전쟁이 난 거야?”

“몰라. 누가 그랬나 왜 그랬나 아무것도 몰라.”

리히스가 고개를 젓고는 이어 말했다.
 “우리가 세상에 나쁜 짓을 좀 했어야지. 우리 영국 말이야.”
 나는 두렵고 어쩔 줄 몰라 목이 조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 나는 어린 아들도 있는데!”
 “멀리 가. 여기에서 먼 데로. 너 외딴곳에 살지?”
 고개를 끄덕이는 내게 리히스는 말했다.
 “그리로 가. 가서 문 잠그고 있어.”
 “그래도 게이노르는…….”
 “미치겠네, 로웨나! 게이노르는 없다니까! 다 끝이라고!”
 리히스가 분통이 터지는 표정으로 덧붙였다.
 “종말이라고!”

지도 TIP

홍수를 내려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영국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았다는 리히스의 말의 연관 지어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핵폭발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할 수 있습니다. 델란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델란이 핵폭발 이후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인류라는 점, 델란은 죄를 지은 인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다양하게 상상하게 해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가)

그렇게 물을 주고 바라보고 바라기만을 하며 몇 주쯤 보냈을까. 어느 아침 무언가가 돌아 있었다. 작고 작은 생명이 감히 살아내겠다고 동그랗게 모습을 드러냈다. 네모진 죽은 흙에 솟아난 초록색의 빛, 하나의 점.

무언가가 시작되어 있었다.

온몸이 흥분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내가, 신기하게도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데 동참했다는 자부심, 기쁨, 기적이 새로운 전기처럼 몸을 타고 흘렀다. 이렇게 엄청나고도 조그만 존재라니! 나는 위층으로 달려가 엄마를 흔들어 깨웠다.

“엄마! 나타났어!”

엄마가 비몽사몽의 상태로 일어나 앉았다.

“뭐가?”

엄마는 끔찍한 소식이라도 전해 들은 듯 물었다.

“비닐하우스에 말이야! 당근 싹이 났어!”

(나)

나는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고개만 끄덕였다.

“음, 책에 나온 내용 다 기억하지? 다 먹어 없애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다시 심는 데도 써야 해. 올해 씨를 모아서 내년에 심는 거야. 그다음 해에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해에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채소가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해도 좋아. 우리가 해마다 새로 태어나는 작물을 잘 키워내자.”

어느 정도 말이 되기는 해도 아직 배신처럼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종말 이후, 엄마도 먹기 위해 짐승을 죽였다. 토끼와 다람쥐와 텃에 걸리는 다른 모든 짐승을. 하지만 이 일이 훨씬 괴로웠다. 그 짐승들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죽이기가 싫어.”

내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래도 식물은 우리랑 달라, 덜란. 고통을 못 느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냥 식물일 뿐이야.”

정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

눈물이 비로소 흘러나온 것은 감자를 먹었을 때였다. 내가 키운 차이브, 민트, 세이지와 소금으로 속을 채우고,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토끼 고기도 약간 넣어 한 시간 동안 구운 감자였다. 나는 울었다. 이상한 울음이었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숨이 빨라지거나 하지도 않은 채, 뜨겁고 붉은 눈물만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난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다. 나는 일곱 살의 나이에 식량을 만들어냈고, 그 작은 마음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신할 수 있었다.

1-1. (가)를 읽고 식물을 키워본 경험 혹은 싹을 틔운 경험이 있으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2. (나)를 읽고 우울해하는 덜란을 위로해 봅시다.

1-3. ㉠과 ㉡을 비교해 본 후, <보기>를 고려하여 ㉠과 ㉡의 차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내적·외적 성장을 그린 문학 장르이다. 주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 갈등, 관계 등을 통해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변화와 성숙을 주된 주제로 그려낸다.

2.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간단 퀴즈〉

- ▶ 덜란이 태어난 병원 이름은?
- ▶ 로웨나가 처음 덜란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이름은?
- ▶ 덜란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외적 특징은?
- ▶ 앵글시에 있는 핵발전소 이름은?

3. 〈보기〉를 읽고 로웨나가 덜란의 아빠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너 정말 잘생겼다!”

나는 말했다. 이제 외모가 더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인데도 나는 아들의 아름다움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는구나, 생각하며.

덜란이 허리를 펴고 나를 보더니 싱긋 웃었다. 어른의 얼굴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의 미소였다.

“엄마, 나 아빠 닮았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날카로움이라고는 없는 그저 단순한 물음.

갑자기 덜란이 잘생겨 보이지 않고, 풍경이 화사해 보이지 않고, 바다도 다시 차가운 회색의 배경이 되었다. 나는 아무 대답 하지 않았고, 모든 것에서 기쁨이 빠져나가 텅 비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4. 〈보기〉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종말이 오기 전,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서로를 대했을까?

책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다투고, 어떤 사람들하고는 친하면서 어떤 사람들과는 친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져 평생 서로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읽은 적이 있다. 그 세계에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중략)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후드를 벗고는 나를 보았다. 캄캄한 밤이 엄마의 눈을 삼켰지만, 나는 엄마가 지은 표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덜란,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당장 누가 여기에 나타난다면?”

“너무 좋겠지!”

그런 일은, 엄마와 모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는 감히 상상도 못 해봤다는 듯 내가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 거야? 집에서 지내게 하고 음식도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런데 만약에, 음…… 네 명이면? 너랑 나랑 모나가 먹을 음식도 부족한데 입이 넓이나 늘게 되는 거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채소를 더 심고, 비닐하우스도 더 세우고.”

엄마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마음이 참 따뜻해, 덜란.”

지도 TIP

이 작품에서 말하는 종말 이전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이 부분 이외에도 종말 이전의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담긴 부분이 제시되어 있으니 관련된 부분을 찾아 참고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보기1~3>을 읽고 등장인물이 푸이흐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1>

푸이흐는 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 믿음은 아주 천천히 천천히 생겨났다. 그리고 나도 푸이흐를 믿게 되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직 푸이흐가 두려웠고, 그 기이한 죽은 얼굴이 푸이흐의 뒤통수에서 언제나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동안 읽은 책들에서 배운 게 있다면 겉모습으로 속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기2>

모나는 이 이상하게 생긴 동물을 사랑하게 되었다. 싫증 한 번 내지 않고 푸이흐와 놀고, 푸이흐에게 밥을 먹이고, 푸이흐를 쓰다듬고, 자기만의 서툰 언어로 푸이흐와 대화했다. 다(먹어. 푸이흐 착해. 앉아, 아가, 앉아.) 가끔은 푸이흐를 보며 소리 내 웃었다. 한두 번 모나가 헛간의 딱딱한 나무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푸이흐는 마치 인형처럼 모나의 품에 안겼다.

<보기3>

토끼 한 마리, 아니, 어찌면 두 마리였다. 머리 뒤쪽에 눈알 없는 눈과 작고 끔찍한 입이 달린, 추하고도 납작한 또 하나의 얼굴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역겹고 혐오스러운 짐승이었다. 야생동물이라면 마땅히 달아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도 분명했다.

내 손에는 밧일용 쇠스랑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렵지 않았다. 그 토끼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달아나지 않았고, 쇠스랑이 토끼의 몸을 쉽게 갈랐다. 토끼는 몇 번 꿈틀거리다가 움직임이 없어졌다.

우리는 버릴 것을 서닝데일 정원 끝에 쌓아 두지만, 나는 그 토끼를 서닝데일 정원에 묻어주었고, 죽은 일들로 덮어 무덤을 감추었다. 그저 작은 동물이어도 내 아이들이 그 끔찍한 생명체를 보지 않았으면 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 커다란 일들로부터는 보호할 수 없어도, 작은 일들은 내가 막아줄 수 있다.

지도 TIP

세 인물의 차이점(종말 이전에 대한 경험, 순수성,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 등)을 고려하여 반응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보기>를 읽고 소프 부부가 죽을 줄 알면서도 월바로 가는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잠에서 깨어 보니 구름은 거의 사라졌고, 플라스틱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마치 내가 실수로 가스레인지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두었을 때나 털란이 벽난로 위에 장난감을 올려두었을 때처럼. 털란은 아직 자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밖을 살펴보았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바다 위 물안개처럼 산 위로 그 구름의 조각들이 떠 있었다.

현관문에서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털란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인 채 빠르게 내려갔다. 문 앞에 데이비드와 수전이, 아직 더운데도 외투를 입고 서 있었다. 수전은 화장한 얼굴이었다. 장밋빛 입술, 은은한 아이새도를 바른 눈,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우린 떠납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곧 들겠지 짐작했던 말의 무거움에 나는 마른침을 삼켰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부의 존재는 정월 울타리 너머의 쾌활한 목소리, 차를 몰고 지나가다 나누는 어색한 미소일 뿐이었다. 하지만 종말 이후 두 사람은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하던 지난날을 흔적처럼이나마 되새길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다.

“아드님들을 만나러 가세요? 돌아오실 때는…….”

내가 끝맺지 못한 문장이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아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수전의 목소리와 눈빛 속에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짙 가뒀든 무언가가 있었다. 수전은 이 순간을 쉬이 흘려보내려 애쓰고 있었다.

“우린 다시 못 볼 거예요, 로웨나. 열쇠를 현관 매트 밑에 넣어 놨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집에서 다 꺼내 가요. 원한다면 들어가 살아도 되고요.”

수전은 내 어깨 너머 허공으로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어디 가시는데요?”

데이비드가 슬픈 미소를 짓고는 대답했다.

“일바로 갑니다.”

나는 두 사람을 빠르게 번갈아 보았다.

“일바라니요! 거기로 가시면…… 죽어요!”

수전이 마침내 나와 완전히 눈을 맞추고 말했다.

“그렇죠.”

이후의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를 뒤덮은 끔찍한 일상성만이 기억난다.

지도 TIP

본문이 내용을 근거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보기1~2>를 읽고 ‘총’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1>

데이비드가 말했다.

“로웨나, 부탁이 있어요.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 집 헛간으로 가봐요. 오른쪽 맨 위 선반에 있는 길고 까만 통에 엽총이 있어요. 옆에 큰 탄약통 세 개가 있고요. 그걸 가져다 로웨나의 침대 밑에 뒹요.”

“네? 총을 우리 집에 왜 뒹요!”

“그렇게 해줘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필요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예요. 부탁드립니다, 로웨나. 나는 오늘 죽을 텐데, 당신한테 그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떠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보기2>

그 구름이 우리를 덮고 지나간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어느 아침, 덜란이 그 커다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손가락으로 개 모양을 만들어 그림자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곳에서, 나는 우리가 살아남겠구나 생각했다.

(중략)

“새들이 돌아올까?”

덜란이 물었다.

“당연히 돌아오지. 결국 모든 게 돌아올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이야기해 준 총이 떠올라, 어서 가서 챙겨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도 TIP

데이비드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월바로 떠나면서 로웨나에게 건네준 것이 총이었다는 점, 죽음의 위기를 넘긴 로웨나가 처음 찾은 것이 총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4-1. 두 인물이 종말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봅시다.

〈보기〉

덜란: 때로, 아니, 사실은 자주, 정원 끝에 서서 내가 만든 모든 건축물과 채소와 식량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더는 아이가 아닌 어른이라는 기분을 느낀다. 단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다.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여기에, 이곳에 꼭 맞는다.

로웨나: 종말이 끔찍할 것 같은가? 다 끝나는 것. 모든 것을 잃고, 사회가 무너지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4-2. <보기> 속 ㉠과 ㉡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꼬마 델란을 데리고 산책하러 갈 때면 주머니에 아이폰을 챙겨 나갔다. 사실상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에 공유할 인터넷용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리고 델란은 유아기 때부터 화면 속 세계에 사로잡혀 있었다. <출동! 소방관 샘>이나 <꼬마 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에피소드와 달리 시작과 중간과 끝이 없는 실제 세계가 델란에게는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고요함 없이 살았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언제나 동반자였다. 그러면서도 어떤 끔찍하고도 요란한 ㉡정적이 있었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봅시다.

1. 텔란은 모나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O / X)
2. 모나의 이름은 '모나 로웨나'이다. (O / X)
3. 텔란이 네보의 부잣집에 가는 이유는 여자친구인 케이트 프란시스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O / X)
4. 로웨나는 모나의 아빠 귀온을 만났을 때 자기의 본명을 알려주었다. (O / X)

2.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모나 그레타는 오늘 잔디밭 사과나무 아래에 묻혔다. 잠옷과 좋아하던 담요에 따뜻하게 감싸인 채. 나의 여동생을 흙으로 덮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일이었고, 엄마는 소리치듯 울면서 풀밭에 무릎을 꿇었다.

(중략)

한 삽 한 삽 점점 무겁게 느끼며 무덤에 흙을 채우던 중, 하늘에서 우리 집 쪽으로 날아오는 화살표의 형상이 보였다. 오래전 까만 구름과 함께 모든 새가 달아난 뒤로 단 한 마리의 새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용히, 우아하게 돌아왔다. 오늘은 내 여동생이 묻힌 날이고, 새들이 돌아온 날이다.

“캐나다 거위네.”

카이나르본을 향해 사라지는 그 새들을 보면서 내가 조용히 말했다.

2-1. 새가 돌아온 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2-2. 모나의 사망과 새가 돌아온 시점이 같다는 것을 고려하여 모나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3. <보기>를 읽고 로웨나가 신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론해 봅시다.

<보기>

1.

나에게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엄마는 내가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2.

“마다이 이 니 에인 디브르와데르Maddau i ni ein difrwader.”

엄마가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너무 복잡해서 엄마는 이해할 수 없는 웨일스어 문장이었다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라’는 뜻이야.”

나는 그 네 가족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머물 곳을 찾는 상상 속 사람들을 생각했다.

“성경을 잘 아네.”

성경을 잘 모르는 엄마가 말했다.

“알레드 레우이스 에반스가 쓴 시 한 구절이야. 모나한테 읊어주면 좋아해. 그 소리가 좋은가 봐.”

“어련하겠어.”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성경이나 그 비슷한 것들에 대한 엄마의 반응은 유별나다.

3.

“모나 이름을 넣어서 묘비를 만들 거야.”

나는 혼잣말을 하는 기분으로 말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으로 향하는 길을 너희는 알 테니’라고 새겨 넣을 거야.”

엄마의 눈이 번뜩였다. 그 안에 무언가 위협한 것, 새로운 것이 있었다.

“성경?”

“「요한복음」. 모나가 좋아했어.”

엄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눈을 마주 본 엄마는 입에서 독을 뿜듯이 말을 내뱉었다.

“네가 믿는 그 신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엄마는 발코니에서 내려가 집 안으로 사라졌다.

4.

어쩌면 진짜 이름이 귀온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종말 이전에 목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포르스마도그의 흙친 집에서 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나 같은 여자 수십 명이 하루가 끝나갈 때쯤부터 각자의 정원 가장자리에 그의 실루엣이 보이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는 쪽을 선택한다. 올 수 있었다면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라고.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딸을 만나고 사랑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 신념을 가진 것은 모두……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들이다.

4. 여러분은 <보기> 속 세계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그 남자의 이름은 귀온이었다. 우리는 A487 도로 한가운데 지워져 가는 흰 선 위에 마주보고 앉아, 보슬비에 천천히 젖어 가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그도 나만큼이나 아는 것이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이 사태의 아주 초반에 사람들의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싸움을 하고, 식량과 연료와 약을 서로 차지하려 다투었다는 것이었다. 지금쯤 그들은 서로를 죽였거나 다른 어딘가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귀온은 어쩌면 카디프나 런던에서는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곳의 사회가 무너졌다고해서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 많은 사람이 어딘가로는 갔지 않겠느냐, 다 죽었을 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정말 그렇게 믿어요?”

내가 묻자 귀온이 어깨를 으쓱하고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인류는 다시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보기1~2>를 읽고 귀온의 과거에 대해 추론해 봅시다.

〈보기1〉

언급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또 하나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달빛과 침대 옆 탁자의 흔들리던 촛불 속에서 본 그의 발 위 작은 문신, 흰 피부에 단순하게 새겨진 ‘M’이라는 알파벳이다. 나는 그 문신에 관해 묻지 않았지만 엄지로 그 글자를 어루만졌고, 귀온은 뒤척이다가 깨어 눈을 깜박거렸다. 파란 눈동자가 밤의 어둠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M을 쓰다듬는 나의 손길이 소리 내어 물어볼 용기가 없는 질문을 대신 해주었다. 귀온은 말이 없다가 몇 번 마른침을 삼키고는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여 대답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가 있었어요.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 일에 관해 그는 차마 거기까지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다.

〈보기2〉

잘되었길 바라. 모든 게 정리되면 곧 당신과 네이션을 만나러 갈게. 사랑해. - M

우편물 수거 마감 직전에 급히 쓴 무심한 카드 같은데, 침대 위에서 부패한 이 금발의 여인에게는 특별한 의미인 모양이었다. 창턱에 올려두거나 냉장고에 붙여둔 것이 아니라, 가장개인적인 공간인 자기 방에 갖다 두었으니.

M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졌다.

2. 모나와 푸이홀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덜란이 모나를 생각하며 울 때 푸이홀 생각하며 우는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나는 피워둔 불을 살피고 T.H. 패리윌리엄스의 에세이와 산 저편에 살았던 옛 작가들의 글을 읽는다. 때로는 비닐하우스나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다. 그렇게 모나를 생각한다. 생각하며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토할 것 같을 때까지 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때로 푸이홀도 생각하며, 푸이홀 때문에 운다. 하지만 언제나 소리 없이 운다. 엄마가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3.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는 ‘한계령을 위한 연가’에서의 ‘헬리콥터’와 본문의 ‘헬리콥터’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 소리 뭐야? 꼭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나는 덜란 곁을 지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나는 소리였지만 고요함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요란하기만 했다.

“뭔데? 뭐야?”

텅 빈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카이나르본 쪽으로 다가오는 까만 말벌 같은 형상을 보며 덜란이 다시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헬리콥터.”

우리는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두렵다.

이전의 세상이, 첨단 기술의 컬러 화면이 가득하던 회색의 날들이. 인사하지 않고 서로를 지나쳐 가던 사람들이. 평범한 삶이. 헬리콥터가.

▶ 「한계령을 위한 연가」 본문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8/2008011800034.html

▶ 참고 동영상: [인생낭독: 人 하이라이트] 시인 문정희

https://www.youtube.com/watch?v=6lFubsV_v8k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때 앵글시가 환해졌다.

불빛의 파도였다. 하나씩 하나씩 주황색과 흰색으로 불이 켜지니, 마치 별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 같았다. 집과 도로가 10년 동안 잠을 잤다는 듯이 깜박거리며 깨어났다. 길고 긴 시간 떠나 있던 문화와 문명이 스스럼없이 돌아왔다.

앵글시의 불빛들이 마치 친구인 양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내 손을 꼭 쥐었고, 엄마의 젖은 눈이 새 빛 앞에서 반짝거렸다.

4-1.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로웨나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4-2. 달린과 로웨나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지도 TIP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설 이후의 세계를 상상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사전활동]

1. <보기>를 읽고 데이비드와 조선어학회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보기〉

“왜 웨일스어 책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책을 많이 읽지도 않는데.”

내가 침묵이 어색해서 내뱉은 말이었다. 데이비드는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책을 탐처럼 높게 쌓아주었다. 토머스 하디, 조디 피코, 데우이 프리소르. 데이비드가 콧등에 걸친 안경을 밀어 올리곤 잠시 그대로 있었다. 우는가 싶었을 때, 그가 말했다.

“우린 아마 본능적으로 가장 읽기 쉬운 것을 지키려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어느 영수증 뒷면에 그 말을 적어, 꽃 모양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였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읽기 쉬운 것을 지키려 하는 것 같다. -데이비드 소프, 2018년 5월’)

“필요? 책을요?”

“언어요.”

“저는…….”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내 안에서 건져 올렸다.

“저는 웨일스어를 안 써요.”

“아, 그래요? 학교를 다른 데서 다녔나 보죠?”

“여기서 다녔어요. 그래도…… 웨일스어를 쓸 줄은 알지만…… 굳이 쓰지 않아요.”

“그렇군요.”

데이비드는 더 이상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 같았다.

“좀 복잡해요. 어릴 때 집에서는 웨일스어를 썼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털란과는 웨일스어를 안 쓰는 거네요. 모국어인데도.”

데이비드가 울적한 미소를 지었다.

▶ 참고 동영상1: [말모이] 설민석 해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k0glvb-4-s>

▶ 참고 동영상2: 우리학교에서 일본어를 써야했던 실화, 말모이 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rD80iMdq87U>

2. 다음은 어휘력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포스트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관련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9371065&memberNo=44009992&searchKeyword=%EC%96%B4%EB%A5%B8%EC%9D%98%20%EC%96%B4%ED%9C%98%20%EC%9D%BC%EB%A0%A5%20365&searchRank=2>

▼ BEST댓글 전체댓글 ①

 **BEST** 남들이 모르는 단어를 써가며 말하는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인거 아닌지..
2024-10-06 07:41 | 신고
답글 26 👍 2331 💬 42

 **BEST** 말뜻은 좋은데 쓴다음 일일이 설명해주는데 시간낭비될듯한 이 기분은 뭐까??
다 알수있고 소통잘되는 단어가 제일 낫지않나요??
2024-10-06 05:16 | 신고
답글 2 👍 1304 💬 17

 **BEST** 잘 배워도 이런단어 생소할 듯. 잘 배웠다는 것은 다들 전문적인 분야의 단어나 내용을 터득하기 바쁘데 이런 단어는 국문
한전공한 이도 평상시 쓰기 힘듭니다. 잘 배웠다한다면 오히려 일상 쉬운 단어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할 듯
2024-10-05 22:18 | 신고
답글 1 👍 1053 💬 9

 **BEST** 내가 써도 못알아들으면 소용없자나요....
2024-10-05 23:03 | 신고
답글 👍 724 💬 8

 **BEST** 잘배운 어른의 단어가 아니라.. 사어가 되고 있는 고유어의 모음이네요.. 고등 필독 한국문학서들에나 나오는 단어죠.. 아
니면 정말 어르신들이 쓰시던가요..ㅎ
2024-10-05 22:29 | 신고
답글 5 👍 713 💬 10

지도 TIP

댓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의견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다음 영상을 보고 어휘를 풍부하게 익히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열여섯 번째 밤] 지금이 오히려, 어휘력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 어른의 어휘력 북토크 | 유선경 | 앤의서재 | 마이금희
<https://www.youtube.com/watch?v=mY0Bvv8Wt8I>

[본 활동]

4.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마음에 드는 어휘를 찾아 아래 표를 채워봅시다.

연번	어휘	뜻	고른 이유
예	곰살맞다	몹시 부드럽고 친절하다	곰살맞은 느낌을 품고 있는 듯한 부드럽고 폭신한 어감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5. 영상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찾은 어휘를 소개하는 쇼츠를 제작해 봅시다.

- ▶ 참고 영상1: AI로 유튜브 쇼츠 제작하는 간단한 방법 (브루)
<https://www.youtube.com/watch?v=SlZi5mNSxs8>
- ▶ 참고 영상2: SNS 마케터라면 꼭 봐야 할 카드뉴스 제작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ClrO2k4tOB0>

지도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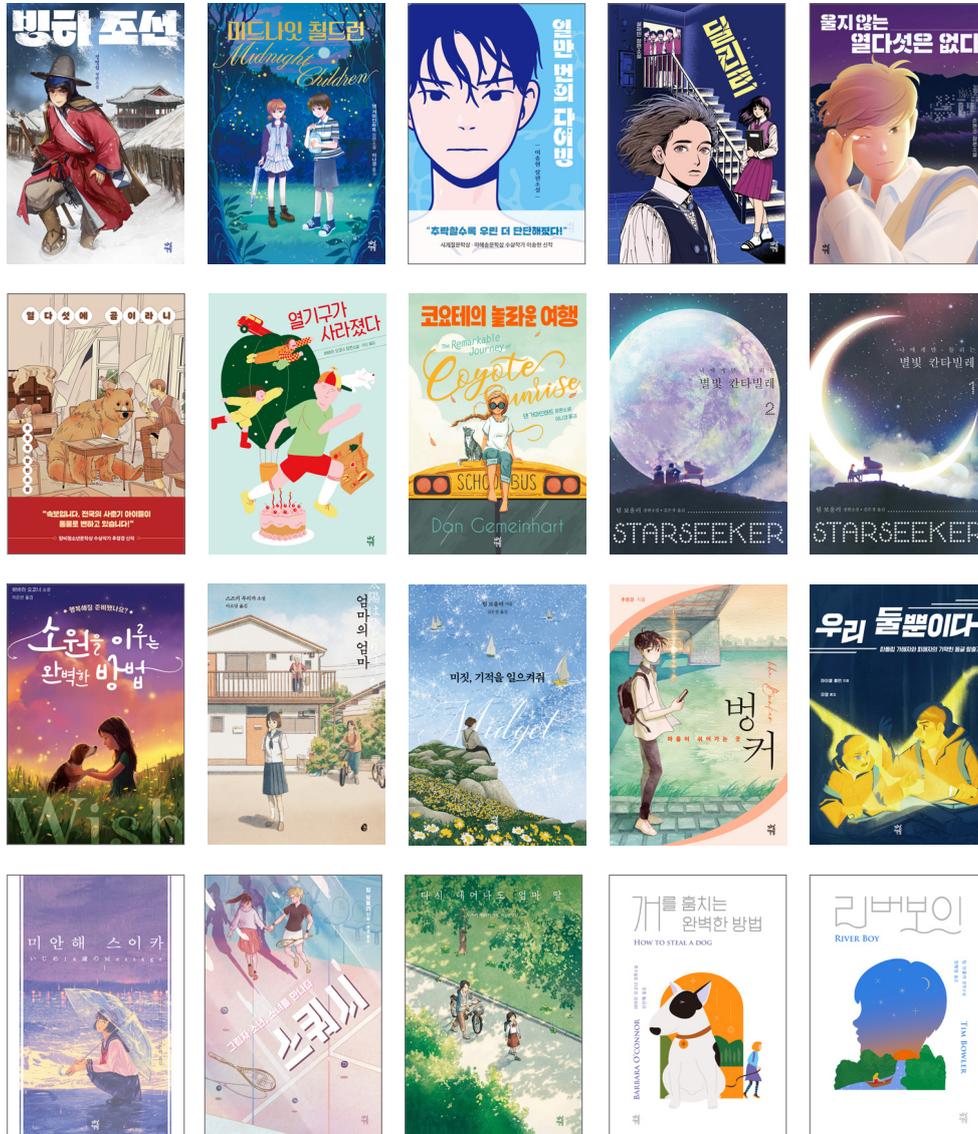
아래 채널을 참고하면 어휘를 소재로 한 다양한 형식의 쇼츠 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teracyshortform>

6. 친구들의 쇼츠를 감상하고 선한 댓글을 달아줍니다.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 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 | |
|----------------------------------|--------------------------------|
| 20 빙하 조선 정명섭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9 미드나잇 칠드런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8 일만 번의 다이빙 이송현 장편소설 | 08 미짓, 기적을 일으켜줘 팀 보울러 장편소설 |
| 17 딜리트 설재인 장편소설 | 07 빙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 16 울지 않는 열다섯은 없다 손현주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콜먼 장편소설 |
| 15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4 스쿼시 팀 보울러 장편소설 |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울러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울러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울러 장편소설 |